



# 감나무

(학명 : *Diospyros kaki*, 감나무과)



대구대학교 자연자원대학  
교수 류 장 발



푸른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붉은 감이 익어가는 장면! 우리나라의 가을을 가장 가을답게 나타내는 풍경중의 하나일 것이다.



고욤나무 열매. 꽃도 열매도 감보다 훨씬 작지만 가지에 다닥다닥 많이 달 리므로 양봉에는 고욤나무가 감나무보다 더 유용할 수도 있을 듯하다.

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붉게 물든 감이 달려있는 장면! 우리나라의 가을을 가장 가을답게 나타내는 풍경중의 하나일 것이다. 잎은 다 떨어지고 붉은 감만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가을 낮의 따스한 햇볕을 쬐고 있다.

수년전 본인이 대구대학교 농과대학의 학장직을 수행하며, 이런 만추의 경치를 생각하여 학교 앞 잔디밭에 감나무 몇 그루를 심었다. 감이 익어 붉게 물들기까지는 의도대로 되었는데, 감의 수가 차츰차츰 줄어들어 감 잎이 다 떨어지기 전에 감이 먼저 없어져 버려, 진짜 절경은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. 감이 예뻐 누군가가 하나씩 따 가다보니, 어느 순간부터는 감이 하나도 없는 나무가 되어 버린다.

감나무는 경기도 이남에서 과수로 재배하고 있는 낙엽교목이며, 일본과 중국에도 분포한다. 잎은 호생하며 혁질이고 길이 7-17cm, 너비 4-10cm로 도란형 또는 넓은 타원형이며, 침두이거나 둔두이다. 엽저는 예저이거나 원저이고 가장자리는 밋밋하다. 꽃은 양성 또는 단성으로서 5-6월에 피며 화관은 병모양이다.

배고팠던 옛날, 무엇을 보든 '먹을 수 있는지?' 를 생각하던 시절에 감꽃은 좋은 군것거리였다. 어느 정도 먹고도 남으면 끈에 꿰어 목거리로 만들어 걸고 다니다가 먹기도 하였다. 사실 감꽃은

어느 정도 마른 것이 더 달콤하다.

열매는 난상원형 또는 편구형이고, 지름 4-8cm로서 10월에 황홍색으로 익는다. 옛날에는 시골 집집마다 감나무 한 두 그루씩은 있었고, 감은 조상의 제사상에도 빠지지 않고 올리는 귀한 과일이었다. 감이 잘 익으면 홍시가 되고, 홍시는 시루떡을 짚어 먹는 단 것 역할도 하였다. 최근에는 홍시를 냉동 저장하여 아이스크림처럼 만들어 음식점에서 후식으로 내는 일도 생겼다. 호랑이보다 꽃감이 더 무섭다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이다.

우리 조상들은 감을 딸 때 다 따지 않고 꼭대기에 있는 몇 개를 남겨두었다. 까치나 까마귀 등 날짐승들의 먹이로 남긴 것이다. '대지'의 저자로 유명한 펄벅 여사가 한국에 왔을 때 이 '날짐승 먹이' 감 이야기를 듣고 '한국은 사람이 살만한 곳'으로 극찬하였다고 한다. 사실 감나무 목재는 매우 약하다. 꼭대기에 있는 감까지 다 따려고 애를 쓰면 가지가 부러져 사람이 다칠 위험이 높다. 젊은 사람이 드문 요즘은 감을 아예 따지 않고 모두 까치 몫으로 남겨두는 경우도 많은 듯하다.

경상북도 청도는 씨 없는 감으로, 상주는 꽃감으로 유명하다. 청도에서는 씨가 없다가도 그 나무를 고개 넘어 경산에 심으면 씨가 생긴다고 한다. 그 원인을 연구해 보아야 되겠다고 준비중이었는데, 지난 해 청도농업기술센터에서 원인을 밝혔다. 청도의 감나무는 모두 암꽃만 있었다는 것이다.

감은 익기 전에는 떫은데, 익기 전부터 단 맛이 나는 단감이 있고, 경상남도 진양 등에서 많이 재배한다. 단감나무는 추위에 약하며, 북쪽에 심으면 떫은 감이 된다고 한다.

진양에서 단감을 재배하는 류○○씨는 단감농장에서 별도 기른다. 감꽃에는 꿀도, 화분도 중간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, 주변에 온통 단감 밭이니 꿀도 제법 생산되나 보다. 자녀들이 서울의 큰 회사에 근무하므로, 단감도 꿀도 서울의 자녀들을 통하여 직거래로 판매한다고 한다. 단감나무 밑에는 자운영을 심었고, 여름에 꽃 피는 나무로 모감주나무를 몇 심본 심었다. 농장을 규모있게,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계셨다.

목재는 건축재, 골프채 제조에 쓰이며 열매는 약재로 쓰이고 먹을 수 있다. 고욤나무(D. lotus)의 실생묘를 대목으로 하여 봄에 절점으로 증식시킨다. 고욤나무는 꽃도 열매도 감보다 훨씬 작지만 가지에 다닥다닥 많이 달리므로 양봉에는 고욤나무가 감나무보다 더 유용할 수도 있을 듯하다. 돌감나무(D. kaki var. sylvestris)는 남부지방의 산지에 자생하며 표면의 주맥에 털이 있고 잎 뒷면에 갈색털이 밀생하며 열매는 편구형으로 감나무보다 훨씬 작다. 감을 과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돌감을 심으라고 권하고 싶다. 돌감은 훨씬 많이 달리며, 더 오래 나무에 다닥다닥 달려 있다.

우리나라 가까이 있는 감나무! 우리나라의 가을을 대표하는 경관! 감나무가 집단적으로 심어진 곳에서는 감꿀도 생산될 것이고, 몇 그루 있는 곳에서도 꿀벌의 귀한 식량이 될 것이다.



감 꽃